

## 호주 서부지역 농업 현황\*

김 성 훈  
(서호주정부 한국대표부 상무관)

### 1. 서호주 농식품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 Food Western Australia)

서호주 농식품부는 서호주의 농업 및 섬유 분야에서 생산 수출업체들을 도와 그들의 생산성 향상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서호주의 친환경적 생태계를 보호하며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귀중한 자연자원을 잘 보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에 서호주 농식품부는 기회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과 섬유제품을 제공하는데 특히 역점을 두었다.

서호주 농식품부의 주요 역할은 창조적인 시장조사와 개발, 국제적인 마케팅, 시장 확장 프로그램 그리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건강식 고품질의 생산품들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일 등이며 이와 함께 해외의 거래선들을 발굴하는 일도 관여하고 있다. 서호주의 우수한 산업인력을 이용해 100만 ha가 넘는 토지를 개간하여 농식품 및 사료작물 등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이는 서호주 농식품관련 산업체와 커뮤니티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서호주 농식품부는 한국을 비롯한 주

\* (ALEC.KIM@dcd.wa.gov.au).

요한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장기간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상호이익과 창조적인 개발 및 우수한 지식교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서호주의 다섯 가지 투자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장기적인 이익의 향상
-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의 개발
- 산업체의 능력향상을 위한 개발
- 시장과 무역교류 활성화
- 서호주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

서호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주된 역할은 토지, 토양, 염분, 수질, 환경 보존 등의 영역으로의 리서치를 통해 사회적 및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보존노력과 식품에서의 병충해 및 유해병원 차단을 위한 노력은 서호주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주(State)가 되었고, 이런 노력으로 쌓아온 신뢰는 서호주의 수출시장에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호주 농식품부의 책임은 농업 및 식품생산, 제조, 마케팅 그리고 이노베이션과 부가가치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있으며, 그런 면에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 무역시장은 서호주 농식품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터전이다.

표 1 서호주 개관

GSP	194.2 억만 호주달러 (약 208조원)
경제성장률	6.0% (2011-12회계 연도기준)
인구	2백43만 명 (2012년 6월기준)
수입	35.1 억만 호주달러 (약37조원)
수출	120.5 억만 호주달러 (약130조원)
면적	2,532,400km <sup>2</sup>
기대수명	남자:78세 / 여자:83세
실업률	4.3% (2012년 11월 기준)
인플레이션	1.1% (2011-2012 회계 연도 기준)
평균주급	1,516 호주달러 (약 163만원 - 2012년 8월 기준)
호주 전체 수출에서의 서호주 기여도	46%

자료: 서호주농식품부 (www.agric.wa.gov.au).

그림 1 호주 지도



자료: 서호주농식품부 ([www.agric.wa.gov.au](http://www.agric.wa.gov.au)).

## 2. 서호주 농업용 토지 및 애양환경

서호주는 호주에서 가장 큰 주(State)이다. 호주전체 면적의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2백5십만 km<sup>2</sup>의 면적에 남북으로의 길이가 2천4백km에 달하고 있다. 북부의 열대 기후부터 남서지역의 온대기후까지 서호주는 넓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다양한 계절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방목을 위한 목초지와 곡작(cereal cropping)부터 관개목장 및 원예 그리고 과수원과 포도농장을 포함한 다양한 농산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곡물, 양모, 고기, 수산물 등이 서호주의 주요 생산물이다. 열대와 온대성 원예작물 및 식품 또한 중요한 생산품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효율적인 농업 분야는 원재료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을 생산해내면서 부가가치를 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와인, 아이스크림, 맥아, 우동(면), 그리고 질 좋은 가죽 제품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1차 산업에 치우쳐있던 농산업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2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서호주의 물류산업은 주로 철도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고 동, 서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서호주와 호주 동부지역의 다른 주(State)들과의 물류운송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호주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은 프리멘틀(Fremantle)항구이며 전체 물동량의 약 85%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의 각 지역별로 9개의 항구(Albany, Broome,

Bunbury, Dampier, Esperance, Geraldton, Kwinana, Port Hedland and Wyndham)에서 나머지 25%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항공은 주도인 퍼스(Perth)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중국 및 중동국가들과 직항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림 2 서호주 농업 시스템



자료: 서호주농식품부 (www.agric.wa.gov.au).

### 3. 서호주 농식품 수출 개관

서호주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곡물, 고기, 과채류, 유가공 및 가공식품 그리고 생육 및 수산물 등에 있어서 해외 시장에서 중요한 생산자이자 공급자이다. 호주는 이들 생

산품의 약 80%를 해외 고객사들 각각의 요구에 맞는 규격과 품질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서호주 농부들은 지속가능한 농산품을 생산하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건조한 환경적 요인을 잘 이용한 건지농업(dryland farming) 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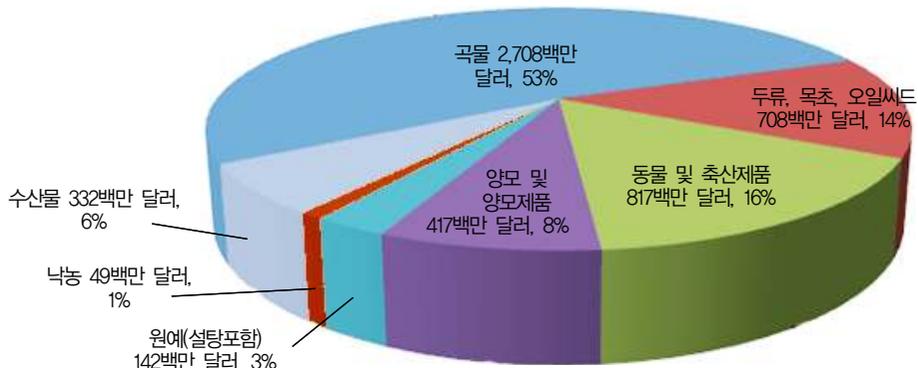
서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병충해가 적은 지역 중의 한 곳이며 엄격한 검역 관리 체제로 인해 전 세계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서호주 농산품을 이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서호주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농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카나본(Carnarvon)과 쿠누누라(Kununurra)지역의 아열대와 열대성 기후는 다양한 열대성 과일, 사탕수수 그리고 관개 열대성 작물을 생산하는데 최적지이다. 남반구에 위치한 서호주의 지리적 특성 또한 북반구 국가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계절적 부족 생산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서호주에서 수출하는 농수산물 중 약 92%는 곡물이며 다음으로는 생육/가공육 그리고 수산물 등이다.

2007년부터 2012년(회계 연도)까지의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이 포함된 극동아시아지역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지역, 중동지역 순이다. 2011-2012(회계 연도)중 최고 수출국으로는 중국/홍콩이 1위이며, 다음으로는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네덜란드, 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2011-2012(회계 연도) 산업별 서호주 농축산물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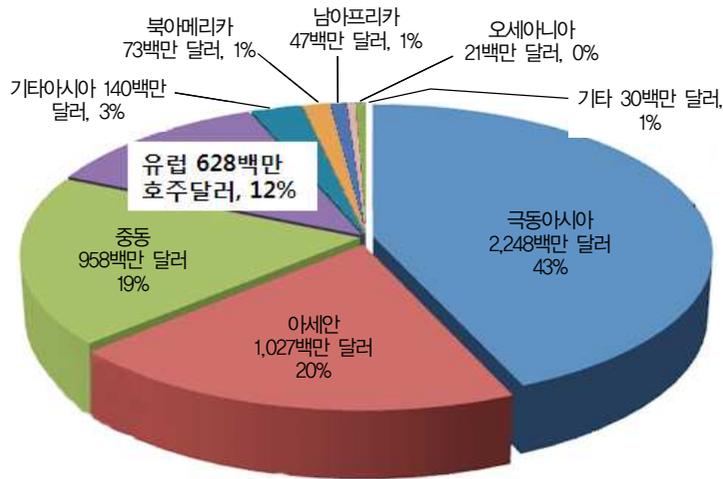
단위: 호주달러



자료: DAFWA(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estern Australia).

그림 4 2011-2012(회계 연도) 수출지역별 서호주 농축산물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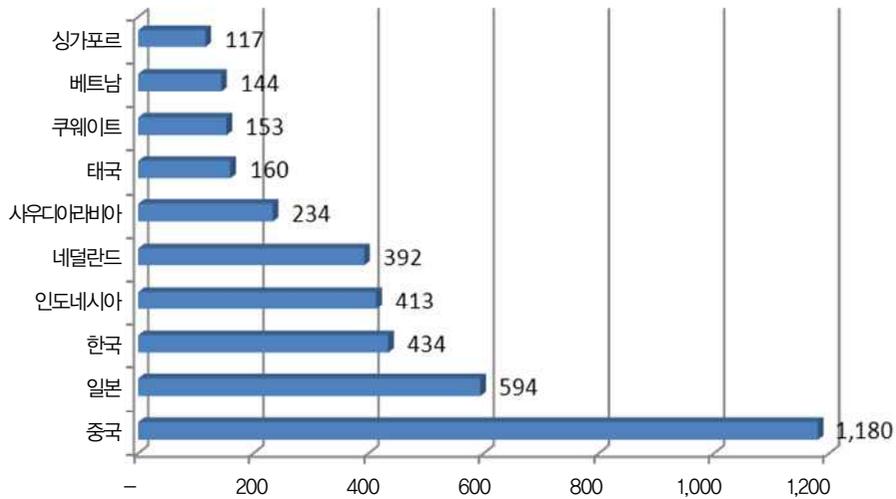
단위: 호주달러



자료: DAFWA(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estern Australia).

그림 5 2011-2012(회계 연도) 수출나라별 서호주 농축산물 수출현황

단위: 백만 호주달러



자료: DAFWA(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estern Australia).

## 4. 안국과의 교류

서호주 농식품산업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매우 크며, 중국 및 일본 다음으로 3번째로 큰 무역파트너이다. 작년기준 약 4억3천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서호주 농식품의 대부분은 곡물이며, 곡물 중에서도 밀(식용), 맥주원료로 사용되는 맥아, 사료용 원료인 건초류, 루핀(lupin)등이며 이 밖에 소고기 및 양고기, 낙농식품 그리고 애완동물사료, 와인 등이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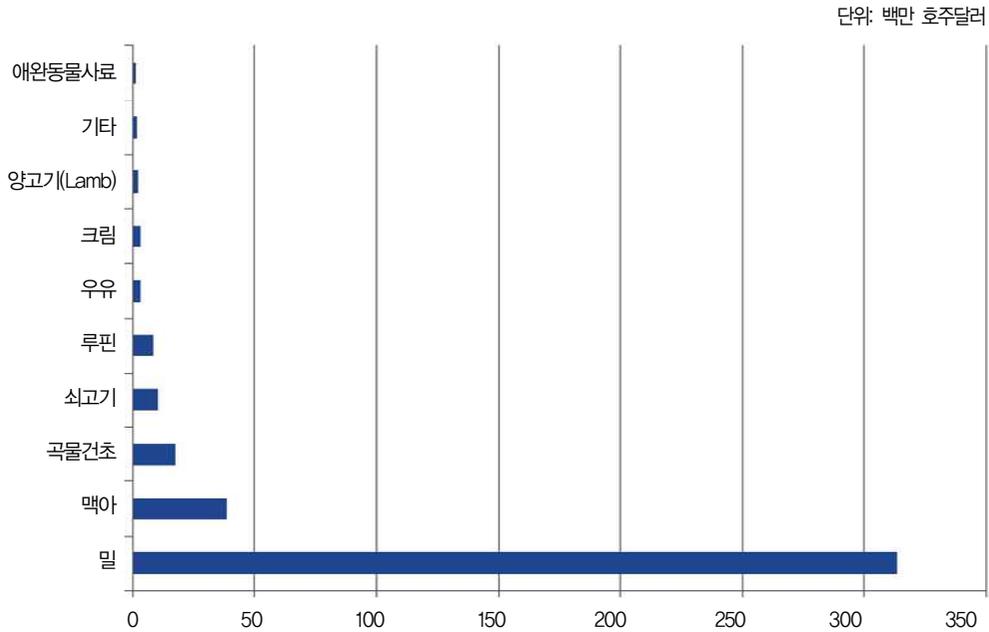
한국의 주요 제분사들은 통해 수입되는 밀은 작년 말 기준 약 3억2천만 달러 정도이며 이는 한국으로의 전체 농식품 수입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맥아는 3천만 달러, 건초 2천7백만 달러, 루핀 2천만 달러, 소고기는 약 9백만 달러 순으로 수입되었다. 최근 식용 가능한 루핀(Sweet Lupin) 및 chia씨(Chia Seed), Non-GMO 카놀라, 귀리(oat)등 기능성 곡물 등이 한국의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시장진입에 성공했거나 곧 성공예정이며 앞으로 이런 기능성 곡물의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호주는 마가렛리버(Margaret River)지역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와인과 맥주, 에너지음료, 과일 주스, 우유 및 생수(spring water)등의 음료 시장진입이 최근 들어 확대되는 추세이며, 호주 전통식품인 미트파이(Meat Pie), 라자냐, 피자 및 햄버거 등의 냉동가공식품, 벌꿀, 바닷가재, 소스류, 송로버섯, 소금, 야채, 과일 등 다양한 품목의 재료들이 완제품 또는 식재료로서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최근 서호주와 한국과의 농식품산업에서의 협력관계는 단순 무역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넘어 한국의 식량자주를 확보를 위한 최적의 목적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 유치에 위한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 활동이 추진 중에 있다.

2010년 7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최하는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사업을 위한 대상국에 호주/서호주가 포함되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정부 및 연구기관, 협회, 민간 기업에서 파견된 조사위원들이 방문하여 전반적인 실사 후 호주 투자환경조사서를 발간하였고, 이후에도 민간 기업을 비롯한 잠재적 투자 기업들의 활발한 방문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호주 농업투자 환경은 넓은 토지(남한면적의 약 33배), 적은 인구(240만 명), 저렴한 농지가격, 다양한 육종, 우수한 자연환경 및 인프라시설, 정치적 사회적인 안정성, 투명하고 공정한 법규 등으로 한국의 전략적 투자요충지로서 손색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과 일본 등 이미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국가의 성공 모델을 발판으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림 6 2011~2012(회계 연도) 서호주 대(對)한국 수출품목 현황



자료: DAFWA(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estern Australia).

## 5. 곡물(Cereals)

서호주 곡물생산 산업은 비단 호주농업뿐만 아니라 호주전체의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곡물산업은 서호주에서 가장 큰 농업분야이며 대부분 밀(wheat)생산이 주요 생산품이다. 약 4,700개의 곡물농장이 있고 대부분 가족경영으로 농가당 1,000~1,500 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전체 약 1,00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호주 천수답형태의 농업시스템에서 볼 때, 전체 호주곡물의 약 30~40% 정도를 서호주에서 생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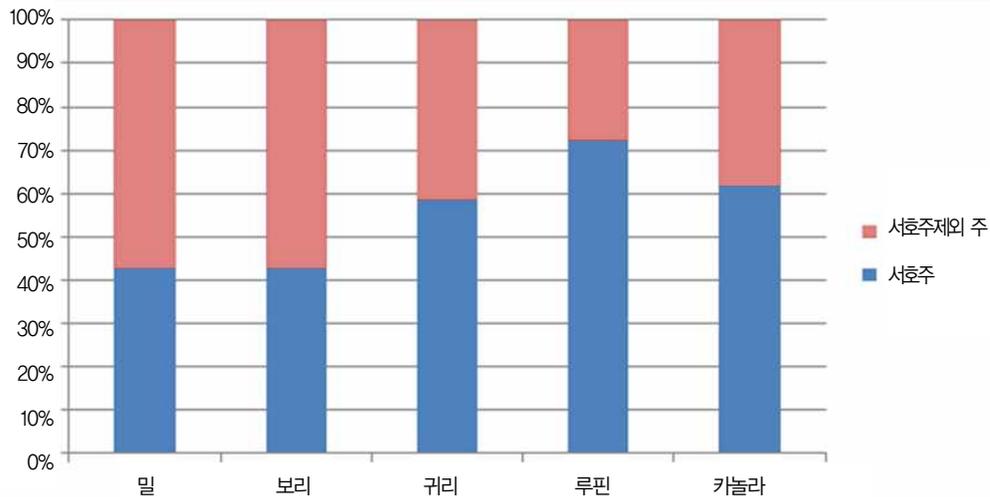
곡물은 다양한 최종상품별 스펙에 맞게 생산되며 대부분 면, 제빵 제과 음료 그리고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 되고 있다. 서호주의 곡물산업은 고품질의 밀, 보리, 그리고 귀리 등을 차별적 시장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호주는 일본 정제염(white salted) 우동면 생산을 위한 세계 최대의 공급자이다. 서호주는 또한 맥주 및 사료용 보리의 최대 생산지이며, 특히 맥주보리의 세계 무역시장

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맥주보리의 최대 수출국이며, 일본에는 소주(shochu)용 보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사료용 보리의 최대 수출지역이다. 서호주는 남반구에서 가장 큰 맥주용 보리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고품질의 가공 귀리를 생산하며 호주에서 제일 큰 귀리 제분소를 가지고 있다.

서호주 곡물수출은 밀의 경우 호주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보리와 귀리는 약30%를 차지하고 있다. 밀 수출은 2011-2012년도에 18억8천만 달러(호주달러)를 기록했고 보리는 5억4700백만 달러, 귀리는 18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 서호주산 밀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태국 그리고 베트남이다. 보리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일본, 쿠웨이트, UAE, 이란이다.

그림 7 호주 곡물수출 현황(2006-2007 ~ 2011-2012)



자료: DAFWA(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estern Australia).

## 6. 호주수출곡물 이노베이션 센터 (Australian Export Grains Innovation Centre, AEGIC)

서호주정부와 GRDC(Grain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는 2012년 말 호주수출곡물이노베이션센터(AEGIC)를 설립하여, 호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곡물을 대상으로 품종개발, 품질연구, 경제적 분석 및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와 관련 산업 기관 그리고 수입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발전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설립취지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8 호주 수출 곡물 이노베이션 센터 마크



자료: ([www.aegic.org.au](http://www.aegic.org.au)).

## 7. 두류 및 유제품

서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위트 화이트 루핀(Sweet White Lupin) 생산지이면서 수출국이다. 이 곡물의 독특한 영양학적 가치와 화학적 구성 때문에 루핀은 새로운 “Super Food”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호주는 또한 다른 종류의 두류인 field pea, chickpea, albus lupin 그리고 faba bean같은 식용품종의 생산 및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서호주는 또한 식용기름 생산을 위한 카놀라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호주 생산량

그림 9 카놀라 생산지역 전경



자료: DAFWA(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estern Australia).

---

의 40~60%를 차지하고 있다. 서호주산 카놀리는 현재 다른 주(State)에서 생산해내는 오일 함량보다 평균적으로 2~4% 높게 생산되기 때문에 호주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카놀라를 생산하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식물육종, 시장조사 그리고 시장 개발 등은 서호주가 항상 주력으로 하는 분야이며 이런 이유로 호주에서 두류와 유지종자는 생산과 수출면에서 가장 큰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회계 연도) 두류와 유지종자 수출은 3억천만 달러에서 7억8백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서호주 두류의 주요 수출국은 (2011-2012년 기준)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필리핀이고 유지종자의 경우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그리고 일본 순이다.

## 8. 육류 및 생육(Meat and Live animal)

서호주는 세계적 규모의 육류 생산지로 냉동/냉장 쇠고기, 양(lamb), 머튼(mutton), 돈육 그리고 염소 등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다. 양(sheep)산업은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약 1,400만 마리의 양육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육류와 울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서호주의 전체 육우 두수는 186만 두이며(2012년6월말기준) 돈육은 연간 3만7천 톤이 생산되고 있다. 가금류는 1,160만 두수를 사육중이나 대부분 국내시장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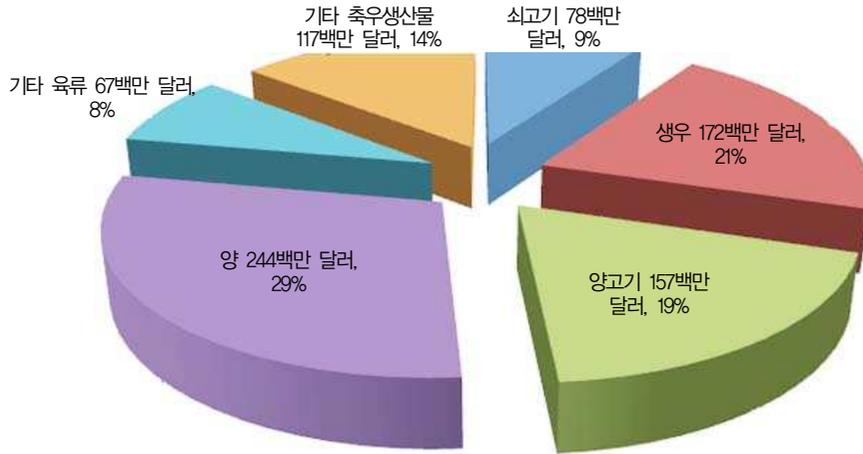
서호주는 특히 수출용 생우 및 번식돈 등의 동물보호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특히 호주정부의 ESCAC(Exporter Supply Chain Assurance System)으로 모든 도축되는 동물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동물보호 규범에 따라 행해지고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쇠고기 수출은 2011-2012년도에 7천8백만 달러였고, 양고기는 같은 기간 2억4천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생우의 경우는 2011-2012년도에 1억7천2백만 달러로 약 30% 전년대비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이 일시적으로 붕괴되었다.

생우수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제일 큰 시장이며 튀이어 이집트, 터키 그리고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으며, 쇠고기수출은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순으로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다. 양고기의 경우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며,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중국, 요르단 그리고 UAE순이다.

그림 10 2011-2012(회계 연도) 서호주 생우 및 축우 수출 현황

단위: 호주달러



자료: DAFWA(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estern Australia).

## 9. 양봉(Apiculture)

서호주 양봉산업은 높은 품질의 벌꿀과 밀랍(beeswax) 제품생산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1-2012(회계 연도) 기준으로 약 960여 곳의 양봉생산업체에서 약 9백만 달러(2,500 톤)정도의 벌꿀이 생산되고 있으며 매년 생산량의 약 30%를 수출하고 있다. 서호주의 양봉산업은 벌꿀 생산과 산업성장의 중요한 요건인 깨끗한 자연환경과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산림 그리고 해안가의 야생화 단지 등 공해 없고 우수한 생태환경 속에서 잘 발달되어왔다. 이런 환경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벌꿀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사랑 받고 있다.

양봉산업은 품질 보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 성장하고 있다. APCBPC (Agricultural Produce Commission Beekeepers Producers' Committee)와 품질보증시스템인 B-Qual 을 통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National Surveillance 프로그램은 또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병충해를 감시하기 위해서 수출항구와 퍼스공항에서 선적용선과 컨테이너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이런 초기단계의 감시 시스템은 서호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 10. 낙농업

서호주의 낙농산업은 내수시장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우수한 품질의 우유를 꾸준히 공급해 가면서 발전하고 있다. 유제품은 해마다 생산성 향상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서호주에는 170여개의 농장에서 60,000두 정도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각 농장별로 약 350여두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 6월 말 기준 호주 전체의 우유 생산량은 연간 100억 리터이며, 서호주는 연간 3억3천8백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서호주 우유가공업체들은 우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선하고 유통기한이 긴 우유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유치로 최신의 가공 설비들을 갖춘 경쟁력 있는 우유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다.

서호주 우유는 호주 및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는 곳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생산업체들은 주 정부의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은 박테리아와 좋은 맛을 내는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서호주는 구제역(FMD)과 광우병(BSE)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서호주에서 생산하는 생우유는 전체 낙농수출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2012(회계 연도) 기준으로 제일 큰 수출국은 싱가포르이며, 다음으로 대만, 한국 그리고 홍콩 순이다.

## 11. 원예

서호주 전체 경제에서 약 2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차지하는 원예 산업은 북동지역의 오드강(Ord River)에서 생산되는 열대성 곡물과 과일(망고 등)을 비롯해서 퍼스시(市) 근교의 해안가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야채들, 그리고 남서부지역의 과일과 프리미엄 와인 등 넓은 국토면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원예작물이 생산되고 있다.

서호주 원예산업은 반대 계절을 가진 북반구에 공급이 가능하면서 안전하고 품질인증이 잘 된 제품의 공급사로서의 명성을 지키고 있다. 원예생산은 2011-2012(회계 연도)기준으로 약 7억8천만 달러의 생산량을 기록했고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12. 근채류

서호주는 우수한 재배환경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개발을 이끌고 있으며, 당근은

그중 최대의 수출상품이며 연중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다. 과거 5년간 꾸준히 수출시장을 늘려 왔고 호주 전체 수출액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약 4,700만 달러이다. 아랍 에미리트와 싱가포르가 주요 수출국이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호주산 당근 수입가격이 중국산 당근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과 연중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점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씨감자 수출의 경우도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서호주의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이 주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서호주 수출업체와 인도네시아 수입사의 노력으로 인도네시아 농업검역원(Indonesian Agricultural Quarantine Agency)이 도착항인 자카르타가 아닌 출발항인 퍼스에서 사전 검역검사를 인정하게 되면서 반송 위험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이는 수입국에서 서호주 내의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의 신뢰도를 인정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13. 와인, 과실류 및 와소류

최근 호주달러가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와인수출은 큰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총 4,3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작년 기준 중국(1,800만 달러)이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했고 다음으로는 영국(720만 달러) 등이다.

서호주의 와인산업은 남서부지역에서 주로 발전되어 왔으며 몇몇 우수한 와인브랜드들은 국제 와인 쇼에서 성공적인 평가와 인증을 받아오고 있다. 전체시장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프리미엄 와인 생산지로의 명성이 퍼지면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과실류 중에서 딸기가 서호주의 주요 생산품이며, 매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확이 이루어진다. 작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약 43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주요 수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이며 태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그리고 UAE가 뒤를 잇고 있다. 아보카도, 감귤류 그리고 망고는 추가 식재를 통해 서서히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서호주는 대부분 자체 토양의 식물군을 바탕으로 한 자생 초화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상업적 수출품으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전 세계 야생화의 약 60%이상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고 서호주에만 서식하는 독특한 야생화들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제일 큰 수출시장으로 성장해 있다.

## 14. 식품(Food)

서호주의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은 전 세계 특히 아시아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식품과 음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서호주 식품산업은 현재 퍼스 및 주변지역으로 약 900여 곳의 가공회사들에 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약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전체 중소형 규모의 식품가공회사들의 약 절반이상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1-2012 회계 연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9억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1년 기준으로 약1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식품제조는 서호주 전체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 정도이다. 작년기준 전체 식품 및 음료 수출은 약 55억 달러를 기록 했고 가공식품의 경우는 약 6억6천만 달러를 기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직 많은 물량의 비가공식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서호주의 식품산업에 부가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은 현재 하이엔드(High-end) 틈새시장(Niche market)으로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와인 및 낙농제품, 소스류, 그리고 냉동식품 등을 주로 개발하고 있다. 서호주 가공식품의 최대 장점은 안전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된다는 것과 판매 시 엄격한 규율과 규격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서호주정부는 여러 국가식품관련 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체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호주 식품의 안전과 품질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서호주 농식품부는 서호주 식품산업의 개발의 최전선에서 민간기업의 기회와 발전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11 서호주 생산 식품



자료: DAFWA(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estern Australia).

### 참고문헌

Western Australian Agriculture Authority.

2013. Bulletin 4842ISSN1833-7236. Departmento Agriculture and Food2013WA's Agrifood,  
Fibre, Fisheries and Forestry Industries.

### 참고사이트

서호주농식품부 ([www.agric.wa.gov.au](http://www.agric.wa.gov.au))